무안~광주 고속도로· 광주~장성 국도 확장·서광산IC 진입도로

광주광역도로망 올안 잇단 개통

광주~화순 국도 확장 공사도 올해 착공

고창~장성간 고속도로에 이어 무안~광주간 고속도로와 광주~장성간 국도1호선 확장구간, 평동산단과 무안~광주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서광산IC 진입도로가 연내 개통된다.

광주~화순간 국도 22호선 확장 공사도 이 달부터 보상이 시작돼 본격 착수되는 등 광주권 광역도로망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올해 광주권 광역도로망 구축에는 모두 2천140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과 광주시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41.35㎞의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가운데 지난해 11월 임시개통된 무안~나주 구간(30.4㎞)에 이어 나주~광주 운수동(무진로 끝지점)이 오는 5월 개통된다. 5천987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이 도로가 완공되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전남 서남권 개발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광주~목포간 도로의 대체도로로 활용돼 원활한 물류 이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북구 동운동 산동교~장성읍 단광리를 연결하는 광주~장성간 국도1호선 확장공사(2차로→4차로) 13.62㎞ 중 지난해 1월 개통된 첨단산단~산동교 구간(6.3㎞)에 이어 산동교~장성읍 구간 공사가 올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1천330억여원이 투입된 이 도로는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려온 첨단지구 입주민들과 광주~장성을 오가는 출퇴근 차량들의 교통난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평동산단과 무안~광주간 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1.5㎞의 서광산IC 진입도로(4차로) 건설도 올해 완료된다. 이 공사는 광주시가 53억원을 투입해 설계와 보상을 맡고, 한국도로공사가 115억원을 들여 공사를 시행,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모범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평동산단 입주업체들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광주 고속도로 나주IC~광주 구간 및 서광산IC 진입도로

지난 2000년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추진돼왔으나 기획예산처의 타당성재검증 절차로 공사가 지연돼 온 광주~화순간 국도 22호선 확장은 올해부터 보상과 함께 공사가 시작된다. 제2순환도로 지원IC와 화순읍 대리를 연결하는 8.1㎞ 구간 중 광주구간은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되며, 화순구간은 기존 너릿재터널을 우회해 4차로가 신설된다. 오는 2014년 준공 예정이다.

또한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북광주IC가 지난 달 2일 개통돼 일곡·양산지구 등 광주 북부지역에서 광산IC나 동광주IC를 거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올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들어가며, 첨단1산단과 첨단2산단을 연결하는 교량 공사도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초 공사가 시작된다. 계속사업인 동광주IC~고서IC간 고속도로 확장(4.27㎞)에도 올해 374억원이 투입된다.

김정운 광주시 도로과장은 "광주권 광역도로망 건설이 완료되면 도로망이 대폭 확충돼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무병장수 하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 서구 쌍촌복지어린이집 원생 70명이 4일 쌍촌종합복지관에서 5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병장수 기원 '사랑의 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놀이와 체험 통해 5·18을 배워요

국립 5·18 묘역내에 어린이 학습관 조성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광주항쟁의 역사와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관이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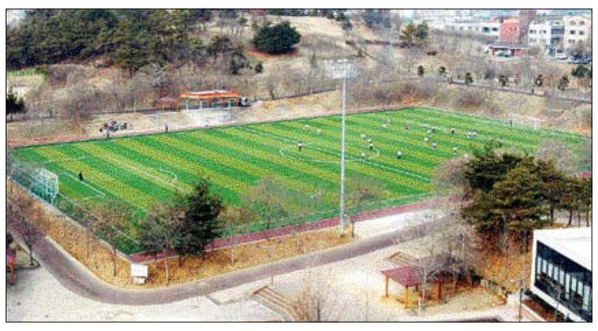
광주시는 5일 "국립 5·18 묘역 내 역사의 문 지하 1층(현 5·18 민중항쟁 사진자료실)을 '어린이 체험학습관'으로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체험학습관은 사업비 10억이 투입돼 141평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5월 착공, 8월께 완공된다. 시는 체험학습관을 5·18 묘역과 연계된 기념·추모시설의 연장선에서 조성하되,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5·18 문화체험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체험학습관 조성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현상공모를 실시한 데 이어 다음달 31일 당선자 발표를 거쳐 4월께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동률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5월 정신을 계승하고 배워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 5·18 묘역에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며 "체험학습관이 들어설 경우 어린이들이 5·18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는 민주주의의 체험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북구 문흥동 문화 근린공원내

국제규격 인조잔디 축구장 개장

광주시 북구 문흥동 문화 근린공원에 인조잔디 축구공원이 생겼다.

북구는 오는 11일 문흥동 근린공원에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축구공원 준공식을 갖는다.

이번에 조성된 축구공원은 세로 111m, 가로 74m의 국제표준규격 인조잔디 구장(연 면적 8천214㎡)으로 조명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북구는 개장일부터 평일·주말 2시간 기준 1만5천960원의 이용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062-410-8266)로 예약을 하면 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문화 근린공원 축구공원 조성은 일곡 잔디구장에 이어 두 번째로 구가 생활체육 활성화 근원지로 모습을 점차 갖춰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올해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입니다"

설연휴 귀성객 대상 홍보

'맛찾아 멋따라 광주·전남으로 오세요'

광주시가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홍보에 나선다.

시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호남고속도로 서광주톨게이트에서 광주시관광협회, 김대중컨벤션센터와 함께 귀성객들에게 광주·전남 관광지도와 홍보물인 '남도의 맛과 멋' 등을 배부한다. 화순 동복수원지 물을 원수로 사용해 만든 병수돗물 '빛여울수(水)'도 함께 제공한다.

박해구 광주시 관광과장은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귀성객들이 고향에서 차례를 지낸 뒤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광주의 발전상과 넉넉한 인심을 실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결식아동 4,500여명 설연휴 급식 제공

광주시는 설 연휴에 끼니를 거르기 쉬운 어린이들을 위해 '아동급식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시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내 6천328명의 급식지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천519명은 연휴 중에도 급식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연휴 기간인 6~10일 이들 어린이들에게 지역별로 급식 제공 식당을 지정하거나 떡국·만두 등 대체 식품, 주·부식을 배달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부식이나 대체 식품을 배달할 때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해당 어린이들에게 음식물 보관 및 위생 관리 요령을 함께 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복지시설 원생들 화재현장 봉사활동

광주희망원 '희망봉사단' 소방방재청장 표창

광주의 한 복지시설 수용자들로 구성된 긴급재해 봉사단이 최근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받았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동구 용산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광주희망원 원생 25명은 지난해 3월 '긴급재해 희망봉사단'을 꾸려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희망봉사단은 발족 이후 지난 10개월동안 광주 동구와 서구, 북구 등지에서 모두 6차례 화재 피해 현장에 출동해 폐기물 처리와 청소 등 궂은 일을 도맡아 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이 재해 처리반을 만든 것은 전국 최초의 일로,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도움의 손길만 기다리던 시설 수용자들이 화재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광주희망원 김혁태 원장은 "봉사단원들 모두 봉사활동을 통해 작지만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화재 현장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귀향길 중간밸브 확인을

가스公 설연휴 안전 당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설 연휴기간 가정 내 가스시설의 안전한 관리법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가스안전공사가 배포한 '가스안전 점검요령'에 따르면 귀성길 출발 전 확인사항으로 가스 중간밸브를 잠그는 것과 동파방지를 위해 가스보일러의 전원을 연결시켜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고향집에 도착해서는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가스보일러의 환기구가 막혔는지, 배기통과 보일러 연결부분이 견고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